특별기고

초등학교에서 한자 공부를 하게 하자

정 기 연
주필

겨울 방학 중인 1~2월에는 각급 학교에서 2023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을 세운다. 교육계획에 학생들이 경험해야 할 교육과정 편성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학교와 학생들 변화의 차가 생기게 된다. 학교 교육 계획은 국민교육을 위해 교육부에서 지시한 상위 목표인 기조(基調) 자료와 학생의 실태조사 학부모의 의지 조사인 기저(基底)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들이 작성한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하며 부모나 교사의 경험을 자녀와 학생이 재구성하는 것이 교육이고 학습이며 경험 재구성을 돕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다.

어떤 경험을 언제 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교육학자 하비가스트(Havighurst, R.)는 일생을 6가지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고유의 발달 문제를 제시하고 달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명백히 밝혔다. 어느 시점의 나이에서 경험해야 할 경험을 하지 못하면 다음 나이에서 학습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경험을 하지 못하고 중학교 과정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教育課程)(경험의 총체)에서는 지적인 면에서는 문자의 이해와 암기 습득이다. 문자라 하면 숫자도 있고 한글 한자 영문자도 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말과 문학의 근원이 되는 한자는 한글전용이라는 고집에 뒷전으로 밀려 법적으로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장 재량으로 한자 교육을 하게 돼 있으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이 빠져 있다. 자기의 이름을 한자로 지었는데 자기 이름을 읽지 못하는 한자 문맹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조상은 나무의 뿌리와 같으며 조상의 이름이 한자로 기록된 것이 족보인데 족보를 읽지 못하는 후손에게는 조상이 없다. 이래야 하겠는가? 한자 문맹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에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자 병기(倂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한글 전용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먼저하고 이어서 교권을 학교에 넘겨 학교 교사가 자녀를 학생으로 교육한다. 이러한 자녀와 학생이 글을 못 읽는 한자 문맹이 된 것에 대해 부모와 학교는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차원에서 새로운 각성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광주·전남도 교육청에서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창의 체험 학습 과정 편성 지침에 학교장 재량시간에 한자교육을 선택해서 하도록 시달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장 재량시간에 한자 교육을 우선해서 선택해 전 교생이 한자에 대해 경험하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려면 국어책을 전교생이 소지하고 있듯이 검인정 한자 교재를 학생들이 지급받아 소지하고 학교에서 안내하고 지도한 방법대로 한자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을 교육감은 교장이 할 것이라 책임 전가하고, 교장은 교사들이 반대한다며, 교사들은 학교 교육은 학교장 책임으로 하므로 교사가 한자 교육하자고 말할 수 없다고, 서로 발뺌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소속한 학생은 한자 교육 없는 학교생활이 되게 한다. 이래야 하는가?

암기력이 가장 좋은 초등학교에서 암기해야 할 필수적인 것을 못하고 실기한다면 후회만 따를 뿐이다. 광주·전남에는 광주·전남 교직자들이 편집한 검인정 초등학교 한자 교재가 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안순일 교육감 때 한자 읽기 교재를 만들어 초등학교에 배부하고 한자 교육에 관심을 두었으나 장휘국 교육감 재임 12년간에 한자 교재는 폐품 쓰레기로 사라졌다.

지금 시중 서점에는 한자 공부를 독습으로 할 수 있는 교재들이 선보이고 있다. 한자 교재의 선택은 학교에서 선택사항이나 학생들이 쉽게 한자 공부를 할 수 있게 편집된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부모와 교사가 한자 문맹의 늪에서 벗어나 초등학교에서 창의적으로 한자 교육을 하게 해야 하며, 무책임한 책임 전가는 있을 수 없다.

발달단계에서 문자인식 도가 가장 빠른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의도적으로 시행해 한자 문맹을 구제해야 한다. 교육하는 가정과 학교에서는 한자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시기가 초등학교임을 알고 초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하게 해야 하며, 학부모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계획에 전교생이 한자 교육을 하도록 요구하고, 초등학교는 2023학년도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포함해서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독자기고

화목보일러가 화재보일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안 재 용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소방교

찬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철인 요즘 차가운 방 안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난방용품을 꺼내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꼭 한번은 가정에서 점검해야 할 곳이 화목보일러이다.

화목보일러는 봄과 여름철에는 사용하지 않아 먼지와 가연물이 쌓여 청소하지 않고 작동시키면 예기치 못한 화재보일러가 될 수 있기에 사용하기 전 꼭 장비 점검이 필요하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 주변을 둘러보면서 먼지나, 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보일러 주변에 두지 않고 사용 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원료로 해 땔감을 구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농촌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산림과 인접하면 산불로 확대될 위험이 크고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검사 관리 등에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 예방 관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화목보일러 설치 시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두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화목보일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연료를 사용하는 이점도 있지만, 설치를 잘못하거나 안전조치 또는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화재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연통 주변 가연물이 닿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자.

둘째, 연료 및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를 두자.

셋째, 연료는 가득 채워 넣지 말고 적당히 넣고 뚜껑은 꼭 닫자.

넷째, 타고 남는 재는 확실히 처리하고 남는 불씨가 없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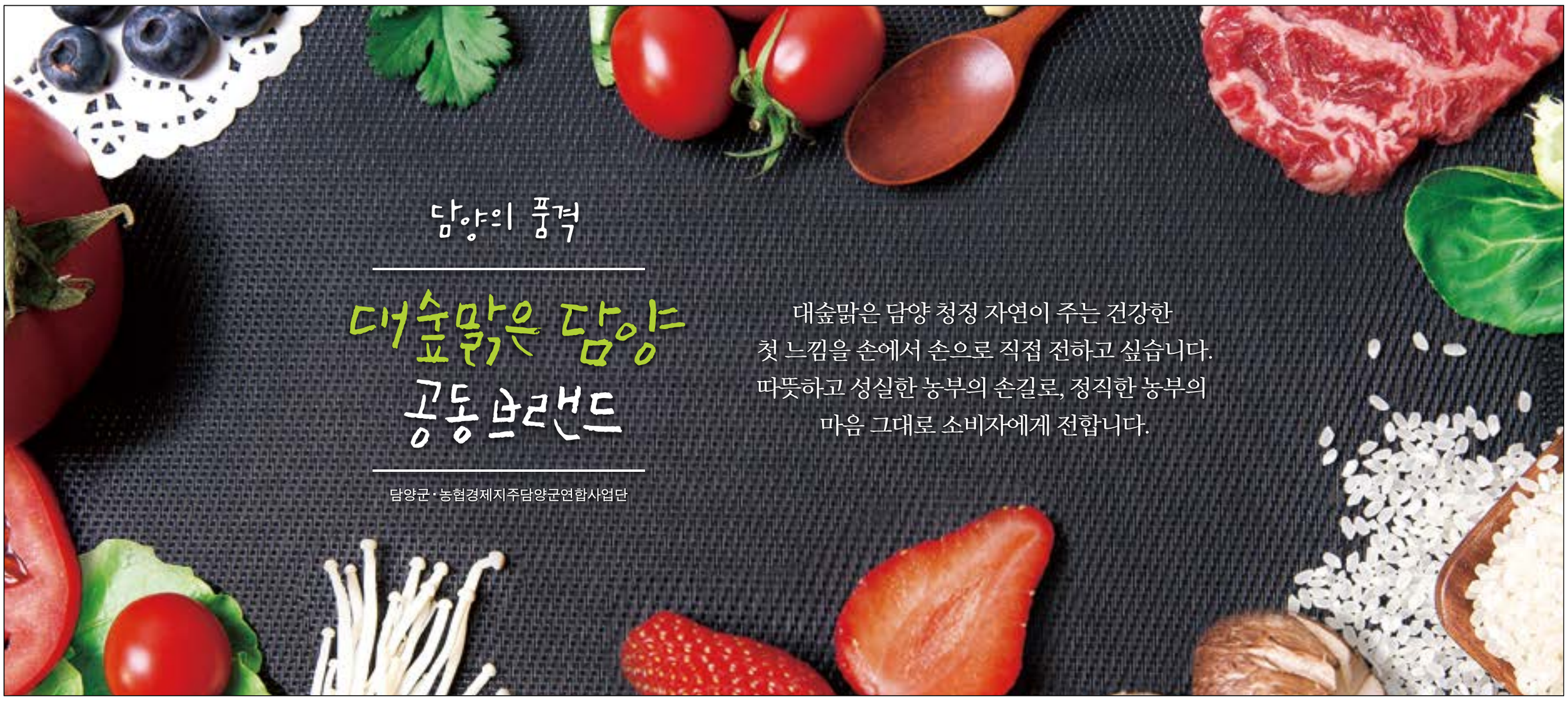
다섯째, 주기적으로 연통 속 타르를 제거하기 위한 청소로 화목보일러 폭발사고를 방지하고, 보일러는 받침대를 두어 지면으로부터 띄워 설치를 해야한다.

이 주의사항을 유의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안길 19-2

회 장 **김 경** |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사 장 **이문수**
발행·편집인 **전광선** |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편집국장 **윤규진**
주 필 **정기연** |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